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



보도	2026.3.16.(월) 14:00	배포	2026.3.16.(월)		
담당부서	중소금융감독국 중소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건필	(02-3145-6770)
		담당자	부국장	이장희	(02-3145-6772)
	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조영범	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석원	(02-3145-7447)
	중소금융검사1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박진호	(02-3145-7410)
		담당자	팀 장	김대영	(02-3145-7370)
	중소금융검사2국 검사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정훈	(02-3145-8070)
		담당자	부국장	이동원	(02-3145-8072)
	중소금융검사3국 검사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익남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 장	이진우	(02-3145-8805)

2026년 중소기업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

1

업무설명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2026.3.16.(월)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신전문금융회사, VAN사 및 관련 중앙회·협회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6년 중소기업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- 세션 I에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의 「중소기업의 생산적·포용적 금융 강화」 강의를 청취한 후
 - 금융감독원의 '2026년 중소기업 부문 감독·검사 방향' 설명 및 질의·응답이 이루어졌으며
- 세션 II(라운드테이블)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 소그룹*을 구성하여 업권별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양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음

* 저축은행·상호금융권·여전업 등 3개 그룹으로 운영

< 2026년도 중소기업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요 >

- (일 시) '26.3.16.(월) 14:00~16:15
- (장 소)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등
- (프로그램)

	시 간	내 용	비 고
Pre 세션	14:00 ~ 14:30	스탠딩 티타임 * 금감원 직원 및 참석자간 소통의 시간	
세션 I	14:30 ~ 14:35	인사말씀	부원장보
	14:35 ~ 14:50	외부 전문가·업계 발표 (주제: 중소기업의 생산적·포용적 금융 강화)	이규복 선임연구위원 (한국금융연구원)
	14:50 ~ 15:15	부문별 감독·검사방향	중소금융감독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
	15:15 ~ 15:20	질의 응답 및 의견 청취	중소부문 부서장
휴식	15:20 ~ 15:30	휴식 및 이동	
세션Ⅱ	15:30 ~ 16:15	라운드테이블(비공개)	중소감·여금감 국장 중소금융검사1~3국장

2 중소기업 부문 부원장보 인사말 주요 내용

- 금융감독원 이진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
 - 중소기업업권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, 업계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힘입어 건전성이 차츰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
 - 최근 중동상황과 美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고, 중소기업업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변화에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음
 - 가장 먼저,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,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하였음

- 또한 금리인하요구권, 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가 누려야 하는
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‘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영업
관행’을 정착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음
- 아울러 부실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,
충분한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
 - 중동상황 전개에 따른 시장급변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과
건전성 등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
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- 또한 금융사고로 인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지 않도록
내부통제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
 - 새로 도입되는 저축은행·여전사의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권의
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
준비를 요청하였음
- 마지막으로 AI·플랫폼 경제 확산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
경쟁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
新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
 - 금융감독원도 업계의 노력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현장의
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*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

* (저축은행) 업무 규율체계를 고유·부수·겸영업무 체계로 개편,
(여전사)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 지원 예정

3

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
향후 감독·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,
-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 업계와
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1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거래 환경 마련

- ‘깜깜이’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* 등을 강화

* 대출금리 변경시 SMS를 통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(저축·상호),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실적·인정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 등

- 대출 청약철회권, 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, 카드사 다크패턴 개선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금융관행 개선

2 지역 서민금융 공급 등 중소기업 본연의 역할 강화

- 중·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*을 마련

*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중·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

- 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부동산·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, 지역·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 마련

3 리스크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선제적 대응

- 금융시장 급변 및 부실발생에 대비하여 연체율, 유동성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, 유사시 특별·밀착 관리하여 위기 확산 차단
- 부실채권 매각 적극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, PF 건전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실 재발 방지 추진

4 내부통제 강화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유도

- 저축은행·여전사 채무구조도, 상호금융의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 제도적 안착 지원 및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한 임원 책임성 강화
- 비정형·신종 대출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권의 취약요인 점검 강화

5 중소기업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원

-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카드사 업무 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 지원
- 저축은행 건전성·지배구조·영업행위 규제의 규모별로 차등,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관리·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위험관리체계 정립